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⑧

智者觀行 與此相反 外忘諸理 止止觀行 外忘諸理 止止觀行 止止觀行

比夫未解乘舟而欲怨其水曲者哉 比夫未解乘舟而欲怨其水曲者哉 比夫未解乘舟而欲怨其水曲者哉

그러나 지혜 있는 이의 관행은 이와 반대이다. 밖으로 모든 이치를 잊고 안으로 마음을 찾되 찾는 마음이 지극

問答約自己眞性 本自圓成 問答約自己眞性 本自圓成 問答約自己眞性 本自圓成

보살은 참되게 비추는 지혜로 모든법의 경계를 증득해 안다

지극한 이치를 얻게 되고 마침내 물러 남이 없게 되어 도리어 머무름이 없는 열반에 머물게 된다.

而無繩自縛乎 而無繩自縛乎 而無繩自縛乎 而無繩自縛乎

如是辨別愚夫與智者 小乘及大乘人 如是辨別愚夫與智者 小乘及大乘人 如是辨別愚夫與智者 小乘及大乘人

물었다. "만약 자기의 참 성품이 본래부터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자체롭게 자기 마음에 맡겨 두어도 옛 법에

큰 스님과의 대화

송월스님

해인사 한주

되풀이하고 있다'는 말로 법문을 시작하셨다. '생명을 뛰어 넘어 현재의 삶을 진실 되게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 법의 전부'라고 강조하신 스님은 특히 모든 것은 기본이 바로 서야 순리대로 조화롭게 돌아감을 강조하셨다.

진실된 삶은? "욕심 버려라"

스님께서 평소 즐겨하시는 서화(書畵)도 기본이 탄탄해야 깊은 멋이 우러나는 법이고 나무도 그 뿌리가 튼튼해야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는 모두 진정한 가정의 부재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산다고 해서 전부 진정한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살림을 꾸미고 잘하고 지혜가 밝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 하면 사상 확립이 잘 돼 있어 사람이 용게 살아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판단을 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심이 있어야 되고 국가에 대한 애정,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어 가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에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지요? ▲욕심을 떼어놓고 봐야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바른 잣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 1925년 경남 함천 생 45년 해인사 훈해스님 은사로 경성스님을 시미계사로 득도 47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역임 영봉사, 김홍사 등 주지 역임 불교전국미술전에서 다수 특선 및 입선 사군자 서예개인전 (9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 繪竹작품 2점 소장 작품으로 해인사 청화당·우회당·진영당·경주 기림사 범종각 대구 선본사 극락전 현액등 다수.

를 하니가 남편은 좋은 소리 들으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것이 도둑질이 되기도 하고, 사기도 되고 또 조금 권력이 되기도. 보편적으로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영향력이 많은 편이 여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방법은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글씨를 써줄 때 많이 써 주는 것이 '정관자득(靜觀自得)'입니다. '고요히 생각하면 얻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만치 않아 있으면 오만까지 생각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만까지 생각들을 자꾸 지워내면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삼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하는 모든 단점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잘 써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라고 짚어 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고리로 연결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뒤 없이 이어지고 있는 슬한 문제점들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바로잡아야 나쁜 좋을까요?

▲진실함을 되찾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진실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정은 화목하고 사회는 밝아집니다. 진실이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요구되는 기본적인 뿌리거든요. 국민 하나하나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고 국민 전체가 다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옷을 입어도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치는 그러한데 실상은 진실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으로 알아도 진실하게 살아가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걸 나한테 물어요? 허허. 그것은 왜냐하면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갈월사 영탑(靈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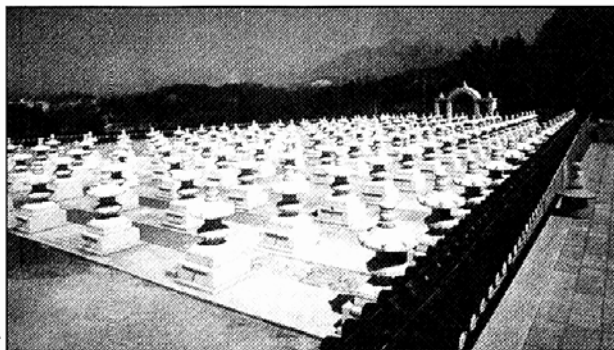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욕심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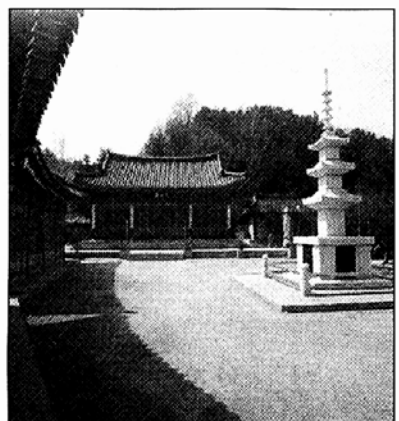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에 평안히 영성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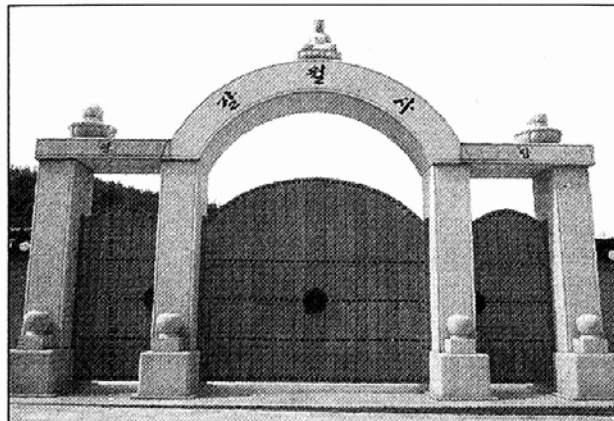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공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갈월사 경내



모시고 싶은 곳, 자주 자주 찾아보고 싶은 곳 - 영원한 심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영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 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계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귀하게 이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